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 韓國生藥協會
法 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3면
- 재배교실 4면
- 선도농가를 찾아서 5면
- 영농상담 6면

국산지황 서럽다



◇지황증근개량사업이 소비자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 지황밭]

약공, 미온적 태도로 일관
kg당 3천원, 생산비에도 못미쳐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인 개량사업이 소비자단체들로 부터 추진한 지황 증근들의 무관심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농생약협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품질보증 차원에서 지난 93년 지황 다수확 품종을 도입, 농가실용성사를 거쳐 지난해 본격적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층인 대한약품공업협회(주)에서 국내산 지황수매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모처럼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황 계약재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계약재배된 지황의 수확시기인 지난 9월 이후 차일피일 수매를 미뤄오던 약공들이 최근에는 kg당 1천원~3천원

농민기권판공 허용

규격화 시행에 따른 선명회

표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민이 자가규격화 한 것도 「규격품」에 포함된다. 또 농민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다수확하는 행위는 농사를 가공행위이므로 약사법 적용대상 이 아니며 기존 판공행

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4일 서울 농림부 청사에서 열린 「규격화 시행에 따른 선명회」에서 최종 확인됐다. 따라서 그동안 농민들이 국산한약재를 판매하는 데 있어 규격화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한약재의 기준판공 허용하고 있는 판공 규정 부칙 제3조는 그러나, 한시적이고 사문화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민들을 스

스로 이어대 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 분석했다.

결국 농민부업협회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산한약재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일반농민을 잘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생약업계 농민들의 숙제로 남게 됐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 수입된 수급조절특별법을

대한약품공업협회(주)는 이같은 배경을 전제로 특이하며, 품목별 수매에 따른 배경이 아닌 국산한약재의 연간 총 수매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산한약재중에서도 판공이 불충분한 비인기 품목이 아닌,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인기품목만을 장사수입으로 수매해 들어간다면 생산차보충차원의 라는 국내산 수매의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0여만근 수매 황기 시호 지황등

생약협회

이같은 조건으로 수매의 차를 통고해 왔다. 그러나 농민들이 총 생산비 산출을 근거로 제시한 당초 수매 희망가는 건 지황으로 kg당 3천원, 시호 2천원, 황기 1천원 정도였다.

지황재배농민 협의회(총본)는 지황(건) 1kg당 3천원, 시호(건) 2천원, 황기(건) 1천원, 생약협회가 제시한 1kg당 3천원(건) 생산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결국 수매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황기수씨(전판공도)는 고령(전)은 연간 수천톤씩 들여오는 값싼 수입지황으로 그동안 제법 짙은 재미를 봐온 수지황 제조업체들이

1백여톤에 불과한 국내산 지황 수매를 꺼리는 것은 말론만 생산차보충을 외치면서 사실상 목적의 이익만을 챙기는 치졸한 장사수입이라고 비난했다.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생약협회가 다수확 품종 도입과 함께 실시한 지황 계약재배는 「지황 국내산」이 되지 않아 가뭄할 것 이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생산농가들로 부터 지황 약 12만근, 시호 약 4만근, 황기 20여만근을 수매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억 2천여만원 상당이다.

생약협회

“생약재는 이땅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름없는 풀 한포기도 제 쓰임새가 있는 법입니다. 하물며 약이 되는 식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이땅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소중한 것은 지켜갈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